사회조사방법론 사회조사를 위한 2차 자료 (II)

김현우, PhD¹

¹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

April 11, 2025



진행 순서

- ① 패널 자료와 반복 횡단면 자료
- 2 설문지 공부하기

사회과학 분야의 자료 가운데 패널 자료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.

- 전통적인 사회통계학에서는 패널 자료를 가장 우수한 자료 형태로 여겨져 왔다 (Why?).
- 패널 자료의 수집과 관리가 대단히 까다롭다는 점을 감안하면, 대부분 대규모 조직이나 정부기관 등에서 특수한 목적에 따라 운용해 왔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다.
- 대부분 패널 자료의 질 관리는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진다. 하지만 패널은 응답자의 조사 거부, 이사 등 연락 두절, 사망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마모(attrition)가 발생한다.
- 너무나도 당연히 마모는 패널 자료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(Why?).



April 11, 2025

- 패널 자료가 주어진 경우 좀 더 엄격하게 인과관계(causal relationship)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난다.
- 특정 연도의 자료만을 잘라내 횡단면(cross-sectional) 자료로 삼아 분석할 수도 있다.
- 2021년도에 조사된 특징이 2023년도 조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도 있다 (Why?).



국내만 해도 수많은 패널 자료가 존재한다.

- 보건복지: 한국의료패널(한국보건사회연구원), 한국복지패널(한국보건사회연구원) 등.
- 젠더: 여성가족패널조사(한국여성정책연구원) 등.
- 교육: 한국교육종단연구(한국교육개발원), 서울교육종단연구, 서울교원종단연구 (이상 서울교육정책연구소), 경기교육종단연구(경기도교육연구원), 전남교육종단연구 (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), 부산교육종단연구(미래를함께여는부산교육), 충북교육종단연구, 대구교육종단연구(대구미래교육연구원) 등.



- 아동·청소년: 한국아동패널(육아정책연구소), 청소년건강행태조사(질병관리청),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,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, 학업중단청소년 패널조사(이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) 등.
- 미디어: 한국미디어패널조사(정보통신정책연구원) 등.
- 노동·조직: 한국노동패널(노동연구원), 청년패널조사,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, 고령화연구패널, 고령화고용패널(이상 한국고용정보원), 장애인고용패널조사 (한국장애인고용공단), 사업체패널(노동연구원), 인적자본기업패널, 한국교육고용패널(이상 한국직업능력개발원) 등.



훌륭한 반복 횡단면 자료도 많다!

- 가장 유명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한국종합사회조사(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)이다.
- 여러 국내 연구 기관에서 반복 횡단면 자료를 축적해왔다. 가령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와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를, 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노인실태조사를 구할 수 있다.
- 정부기관에서 반복 횡단면 자료를 구축하기도 한다. 대표적으로 질병관리청의 지역사회건강조사와 국민건강영양조사가 유명하다.



자료 탐색에 시간을 충분히 많이 써야 한다.

-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정말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하는지를 아는 것은 그 자체로 어려운 일이다(know-how라기보다 know-where에 가깝다).
- 자신의 전공과 무관하더라도 수많은 데이터를 살펴보아야 한다. 이 과정에서 새로운 분야에 대해 관심과 식견을 키우고 학제간 통찰력도 얻는다.
- 이론과 분석 사이의 간극은 언뜻 매우 넓고 깊은 것 같지만 때때로 아주 사소하게 메꾸어진다. 얼핏 본 설문조사 질문 하나로부터 지적 충격을 받아 완전히 새로운 이론적 관심으로 발전하는 일은 매우 흔하다.
- 책 읽기와 마찬가지로 코드북/설문지 읽기도 사회과학 연구에 큰 도움이 된다.
- 관심있는 자료 사이트에 가서 (적어도) 설문지를 다운로드 받고 어떤 문항들이 있는지 눈여겨 보다보면 사회학적 상상력과 분석적 통찰력을 얻는다.



April 11, 2025

특정 자료가 필요하다면 연구 기간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행동하자.

- 많은 경우 회원 가입 후 쉽게 자료를 받을 수 있다.
- 자신이 원하는 자료를 얻으려면 이를 보유한 기관에 별도로 신청해야 할 수도 있다.
 이 과정은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다.
- 경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 내지 개별적인 연락까지 필요할 수도 있다. 이 과정도 당연히 시간 소모를 예상해야 한다.
- 유료 자료에는 손을 대지 말자.



여기 언급된 자료 중 관심있는 것을 탐색해보자.

- 설문지와 코드북을 다운로드 받아 조원과 함께 쭉 읽어보며 토론해보자. 어떤 변수와 어떤 설명이 흥미롭게 연관될 수 있을지 고민해보자.
- 여러분이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와 직결된 자료가 아니더라도 쓸모 있을 수 있음에 주의하자(Why?).
- 특히 한국미디어패널조사(정보통신정책연구원), 지역사회건강조사(질병관리청), 그리고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를 확인해보자.

